

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

20세 이상 여성이라면 3년마다
자궁경부세포검사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세요



NATIONAL CANCER CENTER



국가암정보센터
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

본 권고안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된
'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위원회'가 체계적인 근거평가 방법을 통해 개발하였습니다.

검진 효과

자궁경부암 발생률 ↓ 자궁경부암 사망률 ↓

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면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낮추고,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

자궁경부암 검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결과,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은 사람들에서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최대 65%까지 감소하였으며,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약 64% 감소했습니다.



검진 대상

20세 이상 여성

20세 이상 여성은 증상이 없어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

- 자궁경부 상피내암 발생은 25~29세에 급격히 늘어납니다.
- 검진을 통한 자궁경부암 사망 감소 효과는 74세까지 나타납니다.

75세 이상 여성 중 최근 10년 이내에 3번 이상 검진을 받았고, 그 결과 이상이 없었으면 검진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.

인유두종바이러스(HPV) 예방접종 및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검진 방법

자궁경부세포검사

자궁경부암 검진은 자궁경부세포검사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- 선택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(HPV)검사와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함께 받으면 더 좋습니다.
- 검진의 방법은 의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.

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만 단독으로 받는 것은 검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합니다.

검진 간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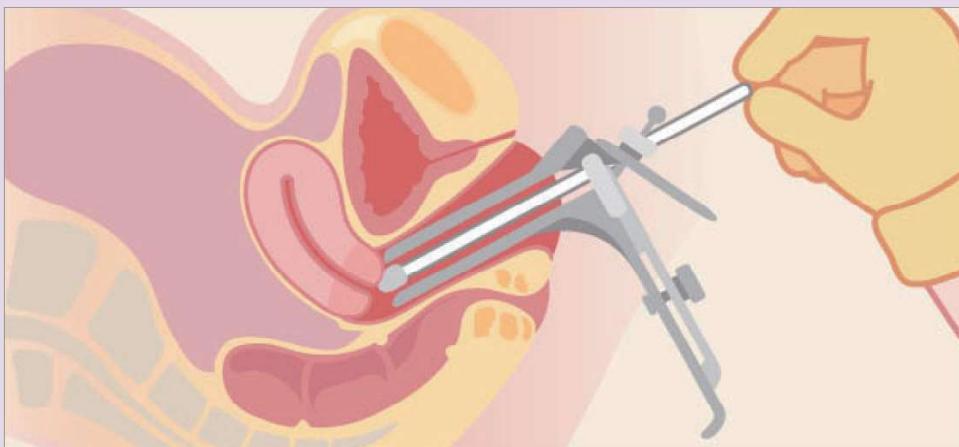
3년마다

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자궁경부암 검진은 3년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

자궁경부암 검진 방법 및 주의사항

자궁경부세포검사



작은 솔을 이용해 자궁경부의 세포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세포의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정확도가 높습니다.

자궁경부세포검사 후 질출혈, 통증, 감염 등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나, 적절한 처치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인유두종바이러스(HPV) 검사



인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.

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와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함께 받으면 자궁경부암 검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



20세 이상



3년마다



자궁경부세포검사



자궁경부암 발생률 감소
자궁경부암 사망률 감소

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

20 - 74세 3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으세요

75세 이상 지난 10년간 연속 3회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으면,
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

자세한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
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

www.cancer.go.kr

1577-8899